



## 경희궁 ‘방공호’의 미래는 어떠해야 할까

### 네거티브 문화재를 바라보는 방식들

글 권기봉 작가, 여행가 / warmwalk@gmail.com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경희궁은 원래의 경희궁이 아니다. 건물도 위치도 하나같이 새롭다. 일제가 경희궁 터에 일본인 자제를 위한 통감부중학, 훗날의 경성중학교를 세운다는 구실로 비집고 들어간 이래 대부분의 건물을 야금야금 헐어버린 탓이다. 그 방식은 경복궁 근정전 격인 경희궁의 승정전을 남산 기슭으로 옮겨 일본 조동종 사찰인 조계사 본전으로 쓰는 식이었다.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법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각원이 바로 경희궁의 정전이었던 승정전이다. 왕이 집무를 보던 흥정당 역시 용산에 있던 광운사라는 사찰로 팔려나갔고, 활쏘기와 무예를 익힐 목적으로 지었던 관사대는 사직단 뒤로 옮겨져 여태 황학정이란 이름으로 이용되고 있다.

### 조선 5대 궁궐 가운데 가장 많이 훼손된 경희궁

정문인 흥화문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현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에 들어선 박문사, 즉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기 위해 지은 사찰로 옮겨져 대문으로 쓰인 것이다. 목조 건물의 특성상 해체 조립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는 창경궁을 ‘창경원’이라는 동물원으로 격하했던 것처럼 조선 왕실의 위엄을 깎아내리기 위한 술수 그 자체였다. 그렇게 1920~30년대를 지나며 경희궁은 담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경희궁이 조선 5대 궁궐 가운데 가장 많이 훼손됐다는 말을 듣는 이유다.

문제는 다른 궁궐들과는 달리 해방 이후 복원사업을 하려 해도 쉽지가 않았다는 점이다. 팔려나간 것 가운데 건물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희궁의 동쪽 8만여 제곱미터의 땅이 1922년 조선총독부 전매국 관사를 지으면서 잘려나갔는데, 해방 뒤 소유권이 민간에 넘어가면서 사무실과 주택이 밀집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구세군회관에서부터 성곡미술관을 지나 대한축구협회가 있는 곳 언저리까지 격자형으로 구획된 지역이 바로 그곳이다. 또 1927~28년에 지금의 새문안길을 확장할 때에는 경희궁의 남쪽 구역이 도로로 편입돼 사라지기도 했다.

그랬던 경희궁을 그나마 다시 고쳐 짓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들어서였다. 해방 이듬해 경성중학교 자리에서 문을 연 서울중고등학교가 1980년 현대건설에 터를 팔고 강남으로 이전해 간 뒤, 그 자리에 빌딩을 지으려 했으나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아 고민하던 현대건설로부터 서울시가 땅을 사들이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그러면서 신라호텔에 있던 흥화문을 다시 옮겨 왔고 승정전을 비롯한 다른 전각들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새로 지어 올렸다. 그리고 그 즈음,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공간인 용복전과 회상전 터 바로 옆에서 ‘방공호’가 발견됐다.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일본에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던 1944년 초, 일제가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구축한 방공호였다.

### 일제, 경희궁에 방공호를 파다

“그때 경성중학교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방공호 파는 데 동원됐어요. 일본 학생이든 조선 학생이든.”

방공호 건설 당시 경성중학교 학생으로서 실제로 노역에 동원됐던 최준희 씨는 14년 전인 지난 2003년 이렇게 말했다. 최 씨는 “일제가 통신시설을 갖춘 전신사령부로 쓰려고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 동국대에서 법당인 정각원으로 쓰이고 있는 경희궁 송정전 모습

붙였다.

당시 조선총독부 체신부는 방공호에서 약 7백 미터 떨어진 현재의 세종로 KT 본사 자리에 있었다. 판에는 궁궐과 같은 문화재 구역 안에 방공호를 만들면 미군의 폭격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들어가 둘러본 방공호는 거대했다. 너비 약 7미터에 높이 5미터, 길이는 50미터 남짓한 2층 구조였다. 최대 3미터 두께의 콘크리트로 벽을 마감한 곳이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견고해 보였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2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방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있었는데, 전체 규모는 장정 1~2백 명을 죽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흰색 타일이 붙어 있는 세면장과 화장실로 보이는 방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 동안 방공호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최근까지도 건설 당시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유

지되어 온 것은 의외였다. 지난해 여름 내부수리 때와 최근에도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곰팡이만 좀 더 끼었을 뿐 그 구조나 상태에는 역시 변함이 없었다. 처음 지을 때 그만큼 세심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 방공호를 판 것은 일제만이 아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해방 뒤에도 비슷하게 문화재를 방패막이로 삼은 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일제가 판 창덕궁 부용지 옆의 방공호 근처에 있던 또다른 방공호가 그것으로, 박정희정권 시절이던 지난 1976년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수립한 '충무계획'에 따라 만든 방송용 방공호다.

목적이 방송전파 송출에 있었으니만큼 모습도 일제가 만든 것들과는 다소 달랐다. 5톤짜리 방송용 증계차를 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근처에는 약 15미터 높



\* '을사늑약의 현장' 증명전은 네거티브 유산이라는 이유로 붕괴 직전까지 방치되다 가까스로 보수됐다.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은 보수 전 모습.

이의 방송용 철탑도 4기나 솟아 있었다. 군사독재정권의 문화재 활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창덕궁 옆의 창경궁을 비롯해 조선 성종과 정현왕후의 묘인 선정릉, 숙종과 장희빈의 묘가 있는 서오릉, 고종의 후궁인 순헌귀비 엄씨의 묘 영취원 등에도 방송용 방공호를 파고 높다란 철탑을 세워 올렸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재를 국가안보를 위한 불모로 삼는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군사 시설물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장소가 군이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응축돼 있는 궁궐과 왕릉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경희궁 방공호를 제외한 서울과 그 주변에 산재해 있던 일제의 방공호와 그 뒤 군사정권이 만든 방송용 방공호 및 첩탐들은 2002~2003년 무렵 철거를 시작해 지금은 모두 없애버린 상태다.

### 경희궁 방공호의 미래는?

문화재 구역 안의 유일한 방공호인 경희궁 방공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군사독재정권 때의 그것처럼 철거만이 능사일까? 서울시와 종로구청,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문화재 관련 운동가나 관심 있는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지나간 식민지 시절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현장이니 없애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남겨두고 기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경희궁 방공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다. 문화재 관련 운동가들 중 일부는 일제의 수탈과 억압 상황을 보여주는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고, 서울역사박물관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역사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로 이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전자는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네거티브 문화재로서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 현장인 '증명전' 정도가 알려져 있는 현실에서, 서울역사박물관처럼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지난 시대를 증언해주는 또 하나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다. 또 후자는 서울 각 지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성장사와 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근현대 유물들을 많이 모았는데, 새로 큰돈을 들여 수장고를 짓느니 이미 있는 방공호를 보수해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그 무엇도 정답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점이다. 비록 지난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 의견을 모으고 그 속에서 더욱 합리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네거티브 유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대한 고민의 수준도 한층 성숙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리**